쇼린지 절

십일면관음상

국보

이 훌륭한 작품은 흔히 자비의 부처로 불리는 관음보살의 상입니다. 관음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식과 부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. 머리 위에 배치된 11 개의 얼굴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얼굴은 자비심과 평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11 개의 얼굴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, 10 개의 얼굴은 여덟 방향과 천지(하늘과 땅), 즉 널리 세상을 보고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맨 위에 있는 얼굴은 깨달음에 도달한 여래의 모습입니다.

8 세기에 제작된 이 상은 일본에서 가장 정교하게 완성된 십일면관음상의 하나로 평가되는데, 온화한 표정과 옷이나 소지품의 섬세한 표현이 특히 두드러집니다. 미국인 미술사가인 어니스트 페놀로사(1853~1908 년)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이 상을 그리스의 조각 작품 '밀로의 비너스' 등 서양 미술의 걸작과 같은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.

높이는 209cm 로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목심건칠상으로 원래는 전신에 금박이 입혀져 있었지만, 수세기를 거치면서 그 일부는 벗겨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 그러나 높이 209cm 의 이 관음상은 지금도 당당한 존재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
원래 이 십일면관음상은 오미와 신사 경내에 있던 다이고린지 절에 모셔져 있었지만, 19 세기에 일본 정부가 신불분리령을 내려 불교 사원과 신도(神道) 신사의 분리를 명하면서 1868 년에 쇼린지 절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.